

『보통학교수신서』에 나타난 사후 영웅화의 양상*

김 용 갑** · 김 순 전***

目 次

1. 들어가며
 2. 사후의 영웅화
 3. 추모공간의 은폐와 과시
 4. 신격화의 서사(敍事)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일본의 문학자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 1886-1912)는 1910년 8월 29일의 일제에 의한 조선 합병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지도 위 조선국에 검디검게 묵을 칠하며 가을바람을 듣노라(地図の上朝鮮國に
くろぐろと墨を塗りつつ秋風を聴く)¹⁾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143).

** 전남대학교 일본문화연구센터 전임 연구원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이 시는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가 1910년 9월 9일에 지어 시가총합지(詩歌總合誌)인 「창작(創作)」에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啄木歌集』(1981, 岩波書店, pp.302~303)을 인용했다. 이하 번역은 필자.

이것은 그의 가집에는 수록되지 않고 와카야마 보쿠스이(若山牧水)가 주재 하던 시가 잡지인 「창작(創作)」에 발표되었지만, 이 지구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는 착잡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한일합병은 군사력에 의한 강제적으로 맺어진 늑약이기에 이시카와는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괴감을 이 작품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멸망은 단지 일본의 한 문학자의 아픔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을 병탄하고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조선을 식민지로서 영구적인 지배를 획책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일제와 천황에게 충성스런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 인민을 교화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 교육을 정비하며 일제의 시책에 부합한 교육을 강요했다. 특히 수신 교과를 통해 일제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며 맹목적이고 순종적인 조선인을 양성하고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수신과는 여러 과목들 중의 하나이지만 실은 이것으로써 전 과목을 대신할 수 있으며, 교육 사업은 수신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의의는 교육에 관한 칙어의 실천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²⁾라고 기술하며,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서 수신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신이란 어린이에게 어떻게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앞으로 자라나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는 근대교육의 발로이며, 그에 합당한 덕목과 사항을 수신서는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수신교육은 조선 아동에게 그에 합당한 근대시민으로서 자질을 구비하며, 자아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할 목적은 없었다. 일제의 조선인 교육 목적은 그들에게 복종하고, 천황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는 데에 있었다.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일본인의 자질을 함양케 하여 그들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인물을 만들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일본어를 보급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식을 제공하고자 했다.³⁾

지금까지 수신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⁴⁾ 그 중에서 수신에 등장하는 인물을 고찰하고 있는 연구도 있지만,⁵⁾ 어느 한정된 시기

2) 高橋浜吉(1927), 『朝鮮教育史考』, 帝国地方行政学会 朝鮮本部, p.401.

3) 김진균·정근식·강이수(1997),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학과학사, p.78.

4) 이병담(2006), 「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교과서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태준(2003), 「일제강점기하 수신교과의 정책연구」, 『일어교육 27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235-263.

5) 지호원(1997), 「日帝下 修身 教科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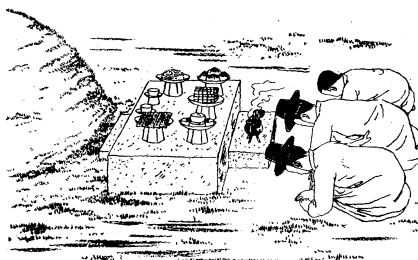
의 등장인물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⁶⁾ 그래서 본고에서는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이래 1941년 10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며, 1912년부터 1943년까지 5차에 걸쳐 조선총독부가 편찬 발행한 『보통학교수신서』⁷⁾에 어떠한 모범적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일제가 그런 인물들이 죽고서 그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써 이용하고 있던 기념비나 신사(神社) 등의 장치가 어떻게 묘사되며, 각 시기별로 어떠한 영웅화의 양상을 띠며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일제가 노리고 있었던 조선인의 민족적 말살과 황국신민화의 변용 과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 사후의 영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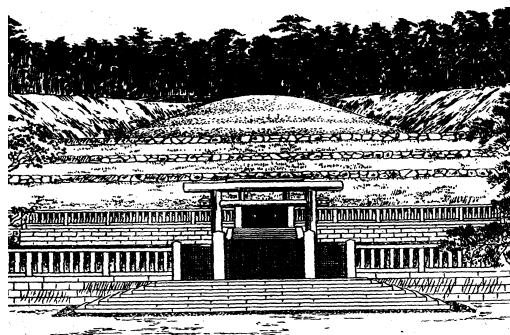
조선총독부는 충량한 신민화 교육의 총화라 할 수 있는 ‘교육칙어’를 기초로 하여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제I기>를 편찬하여 1922년까지 사용하였다. <제I기>에서 가장 먼저 사후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KI-(2)-17> 「조상」에서 성묘를 하고 조상님에게 제배하는 삽화가 소개되고 있다. 내용은 조상의 제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 데에 반해, <KI-(2)-24> 「메이지천황(明治天皇)」에서는 메이지신궁(明治神宮)을 배경으로 신성한 구역을 나타내는 숫대(鳥居) 뒤로 커다란 분봉이 배치되어 있는 삽화가 실려 있으며, 조선에 많은 하사금을 내리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6) 이치현(2004), 「1920년대 普通学校 <修身> 교과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7-50.

7) 기본 텍스트로 한기언·이계학(1996), 『한국교육사집성』, 한국학 중앙연구원 (旧 정신문화연구원) 편을 저본으로 사용하며, 조선총독부 발행의 1912~1915년의 <제I기 보통학교수신서>(1~4학년), 1922~1924년의 <제II기 보통학교수신서>(1~6학년), 1928~1934년의 <제III기 보통학교 수신서>(1~6학년), 1939~1941년의 <제IV기 초등수신서>(1~6학년), 1943~1944년의 <제V기 초등수신서> (1~6학년) 등을 본문에서는 <로마자 기수>로 통일하여, 각각 <제I기>, <제II기>, <제III기>, <제IV기>, <제V기>와 같이 약해서 표기한다. 또한 인용문의 소재 표기 방법은 <기수-(학년)-과수>의 순서로, 조선총독부 발행의 <제I기> 4학년 24과의 경우 <KI-(4)-24>로 표기한다.



<KI-(2)-17> 조상」



<KI-(2)-24> 「메이지천황(明治天皇)」

이것은 같은 사후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삽화와 내용이지만, 조선 아동에게 성묘를 통해 조상숭배의 사상을 일깨우며, 메이지천황에 대한 단원에서 천황의 죽음은 언급하지 않고 46년 동안 일본을 다스리며, 조선에도 많은 하사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익명의 조선인의 평범한 묘와 일본 근대화의 기수로서 신격화된 메이지천황 능의 비교를 통해 일본인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된 배치이었다고 생각한다.

<제I기> 수신서에서 직접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등장인물은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로 그가 조실부모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다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손토쿠가 열여섯 살 때, 어머니도 죽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상담하여 각각 세 명의 아이들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손토쿠는 큰아버지 집에 맡겨졌습시다만, 낮에는 일을 거두고, 밤에는 늦게까지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거나 하며 일했습니다.

손토쿠는 지금, 학문을 해 놓지 않으면, 무지한 사람이 되어 평생 동안 입신하여 집안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매일 밤일을 끝내면 책을 읽거나 글자를 익히고, 산수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KI-(3)-5>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3)(수학)」)

손토쿠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더라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학문을 연마했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손토쿠의 어머니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손토쿠의 어려운 환경 설정에 대해서 나카무라 기쿠지(中村紀久二)는 “긴지로(金次郎)이든 그 밖의 효자이든 메이지 수신교과서에 등장하는 효행스런 어린이의 부친, 모친의 전형은 가난, 병(눈병이 많다)⁸⁾, 주정꾼이고, 그 이외의 사정은 교과서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 대부분은

8) 조선총독부 편찬 「보통학교수신서」 <KI-(3)-18> 미신을 피하라, <KI-(3)-12> 「미신에 빠지지 마라」, <KI-(4)-12> 「위생(1)」 등의 단원에 등장하는 눈을 치료하는 삽화를 통해서도 그 당시 눈병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를 희생으로 하여 살았음에 틀림없다.”⁹⁾라고 일본 문부성 발간 『심상소학수신서』 <제I기>에 등장하는 입신출세형 모범인물들의 전형으로서 부모들의 가난과 병고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손토쿠의 부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고 손토쿠가 세상을 위해 힘쓰고, 그의 가르침이 널리 사람에게 이롭게 했다는 것을 소개하며 그의 죽은 후 니노미야 신사(二宮神社)에 모셔져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후의 시기에서도 손토쿠가 등장하는 수신서의 덕목은 자립과 근검절약 등에 의한 입신양명했다는 귀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교육받은 어린이는 자신도 손토쿠와 같은 모범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어린이의 본보기가 되는 손토쿠에 대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는 후년 자신의 소년시절에 동경(憧憬)의 대상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나는 초등학교의 독본 중에 니노미야 손토쿠의 소년 시절이 많이 썩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던 손토쿠는 낮에는 농사 심부름을 하거나 밤에는 짚신을 만들거나 하여 어른과 같이 일하면서, 씹씹하게도 독학을 계속해 간 것 같다. (중략) 그러나 15세가 채 되지 않은 나는 손토쿠의 기개에 감격하는 것과 동시에, 손토쿠만큼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을 불운의 하나로조차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노예가 좀 더 굶은 쇠사슬을 갖고 싶어하는 것처럼.¹⁰⁾

아쿠타가와와는 조실부모하고 손토쿠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집안이 가난하지 못했다는 환경을 탓으로 하지만, 일제의 손토쿠를 통한 모범적인 인물을 통한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노예와 같은 근성을 조장시키는 데에 있었다는 것을 간파하며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 지적은 식민지 조선 어린이에게는 더욱 철두철미한 ‘충량한 신민’의 양성에 적합한 인물로서 니노미야를 일제와 조선총독부가 중점적으로 배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토쿠와 같은 모범적인 입신출세형의 전형화된 조선인 등장인물은 정민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민 출신 조선인 정민혁은 아버지를 여의고 고달픈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정민혁(鄭民赫)은 전라북도 만경(萬頃) 사람으로 다섯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는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장작을 만들

9) 中村紀久二(1990), 『復刻 国定修身教科書』, 大空社, p.81.

10) 芥川竜之介(1925), 「侏儒の言葉」, 「改造」. 인용은 『羅生門・鼻・侏儒の言葉』, 旺文社, pp.91-92.

어 팔기도 하고 쌀을 저 날라주고 품삯을 받아서 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
다.(〈KI-(4)-12〉「정민혁(1)효행」)

또한 그의 어머니 죽음을 슬퍼했다는 〈KI-(4)-13〉「정민혁(2)(근검)」이라는 단
원에서 연이어 등장하며, 특히 정민혁이 죽고 난 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정민혁이 죽고 난 후에 방구석 쪽에 상자가 몇 겹이 있었습시다만, 그 안에는 형곶조각이
나 종이부스러기 등이 가득 들어 있었습시다. 이런 것이라도 버리지 않고 이것을 모아두
고, 필요할 때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KI-(4)-13〉「정민혁(2)(근검)」)

하찮은 형곶조각이나 종이부스러기조차도 모아두었다가 유용하게 쓰려고 했던 정민혁
의 근검절약 정신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민혁과 같이 나중에 쓸 일에 대비하였다는 일화는 〈제V
기〉에서는 일본인 농부 사쿠베(作兵衛)로 대체되어 다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다.

사쿠베가 45세 되었을 때 심한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시다. 그 때
사쿠베 역시 기근으로 쓰러졌는데, 머리맡에는 최후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정
성껏 골라 놓은 보리씨 자루가 놓여 있어서 모두를 감동시켰습시다. (〈KV
-(5)-5〉「농부 사쿠베(作兵衛)」)

이것은 〈제I기〉의 정민혁이 죽은 장면의 상황과 비슷하다. 정민혁이 남긴
것은 형곶조각이나 종이부스러기와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으로 남을 크게 감동
시킬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쿠베가 자신이 굶어 죽을지언정 끝까
지 남긴 곡식을 보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다는 것을 밝히며 이
일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I기〉에 인상 깊은 죽음의 장면은 여동현의 아내로서 다음과 같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변씨는 매우 슬펐습시다만, 마음을 다잡고, 한층 더 부모를
잘 모시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힘을 다했습시다. (중략) 노년이 되어 죽을 때
에 두 아이를 불러 “너희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부모를 모시고, 너
희들 기르는 것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나는 슬픔 중에도, 지금까지 오래 살아
온 것이지만, 지금은 너희들도 성인이 되어 조상의 제사를 모실 수 있게 되었
다. 너희들은 근검을 잘 하고,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

하고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KI-(3)-5> 「여동현의 아내(呂東賢の妻)(2) (효절)」)

남편과 일찍 사별하였지만, 남은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는 조선 여인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조상의 제사를 자식들에게 당부하며 조용히 눈을 감는 여장부의 임종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은 아직도 여동현의 아내인 변씨를 존경하고 받들고 있다는 소개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아들에게 그녀와 같이 순종적이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그것을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에도(江戸)시대 일본 양명학의 학자로 유명한 나카에 도주(中江藤樹)는 <KI-(3)-13> 「덕행」과 <KI-(3)-15> 「정직」 등 세 단원에 등장하는데 그의 사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나카에 도주는 가난함 속에서도 늙은 어머니에게 효행을 다하고 또 평소에 학문을 하여 마침내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중략) 메이지 시대가 되어 조정은 도주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였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지금도 해마다 도주의 제사를 지냅니다. (<KI-(3)-13> 「덕행」)

니노미야 손토쿠에게 메이지 정부는 1891년 종사위(從四位)라는 관직을 수여한 것¹¹⁾처럼 나카에 도주도 높은 관직과 그를 흠모하여 제사가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도시대의 유명한 농정가 니노미야 손토쿠와 학자였던 나카에 도주 등에 대해서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니노미야옹(二宮翁)을 등장시킨 것은 가장 잘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역사 중에서 모범인물로서는 나카에 도주(中江藤樹)가 있고,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우에스기 요잔(上杉鷹山)이 있고, 미토(水戸)의 의사(義公)가 있고, 열사(列公)가 있다.¹²⁾

나카에 도주(中江藤樹),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등은 역사적 모범인물로서 학식이 높고 세상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메이지 정부가 주도가 되어 일본의 일반인 사이에서 그들을 영웅으로 받드는 관행이 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中村紀久二(1990), 『復刻 国定修身教科書』, 大空社, p.138.

12) 井上哲次郎 「学説における二宮尊徳」・留岡幸助編 『二宮翁の諸家』 所収, 인용은 中村紀久二(1990), 『復刻 国定修身教科書』, 大空社, p.139.

<제I기>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장식하는 인물은 에도시대의 유명한 지리학자였던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이다.

다다타카는 74세 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중략) 다다타카는 죽기 전에 가족을 향해 “내가 오늘날까지 한 일은 모두 다카하시(高橋)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의 큰 은혜는 지금까지 명심하여 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선생님의 묘 옆에 묻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 유언대로 다다타카를 도쿄의 묘 옆에 안장하였습니다. (<KI-(4)-19>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3)(敬師)」)

스승에게 입은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죽어서도 스승의 묘 옆에 안장되기를 유언으로 남겼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일본인의 스승에 대한 충직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I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주목할 점은 조선인으로서 정민혁과 여동현의 아내의 죽음이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지만, 그들에게는 사후 이렇다 할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이 조선시대의 평범한 농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일본인은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보통학교 수신서』 <제I기>부터 <제V기>의 전 시기를 통하여 등장하고 있는 인물로서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는 19단원, 나카에 도주(中江藤樹)와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 각각 8단원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니노미야는 각 기수별로 2단원 이상 등장하며, <효행> <근로> <면학> <공익> 등 가장 많은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에도시대에 농민봉기가 빈발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막번(幕藩)에 저항하지 않고, 그 체제에 순응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로서 메이지 신정부는 이점을 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행적을 영웅화시키기 위하여 메이지 정부는 높은 관직을 하사하고, 그들을 제사지내는 신사 등의 건립을 묵인하거나 옹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 조선의 어린이에게 일제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반발하지 않는 체제 순응적인 인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신 교육에서 하나의 도구로써 이용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 추모 공간의 은폐와 과시

일제는 3·1 운동이라는 외부적인 조선인의 저항과 내부적으로 1910년 한일 합방 때부터 시행해 온 군대와 헌병 경찰의 무력을 앞세운 무단통치만으로는

조선인들을 잘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층 더 교묘하게 조선 민족의 말살을 의도하는 ‘동화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고 보통학교의 교육 목적을 “보통학교는 아동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여 덕육(德育)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수여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涵養)하고 국어(일어)를 습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³⁾고 밝히며, 여기에 맞춰 1922~1924년에 걸쳐 <제Ⅱ기>를 새롭게 편찬 발행하여 1928년까지 사용했다. 그리고 <제Ⅲ기>의 편찬에 있어서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지 않고 1928~19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1938년까지 사용되었다.

<제Ⅱ기>에서 먼저 사후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KⅡ-(2)-11> 「조상」에서 <제Ⅰ기>의 성묘를 하고 조상님에게 제배하는 삽화와 조상의 제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간단히 기술되어 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한다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또한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단원은 <KⅡ-(4)-4> 「형제」에서 이이가 형의 부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대목이다.

울곡은 “아버님이나 형님의 명령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결코 자리가 높다거나 비천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만약 죽어 버리면, 형님 일을 대신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Ⅱ-(4)-4> 「형제」)

여기서는 실제 사람이 죽어 그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잘 대해야 한다는 비유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이퇴계가 3학년의 <KⅡ-(3)-15> 「행의」에 이어 5학년에서는 <KⅡ-(5)-13> 「면학」, <KⅡ-(5)-14> 「소질」, <KⅡ-(5)-25> 「성실」 등 네 단원에, 이울곡이 4학년의 <KⅡ-(4)-2> 「뜻을 세워라」와 <KⅡ-(4)-3> 「효행」 등의 세 단원에 연속하여 배정되어 있지만, 이들의 생전의 업적과 사후의 추모공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것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선의 역사 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어린 일본 소녀가 주인집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는 미담이 다음과 같은 불의의 사고 전말이 마치 신문의 보도기사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13) 朝鮮總督府(1922. 2. 6), 「勅令」, 『官報』.

오쓰나(おつな)는 와카사(若狹)의 어부의 딸로 15살 때 애를 보는 고용살이로 갔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이를 업고 놀고 있었는데 한 마리 개가 오쓰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쓰나는 놀라 도망치려고 했습니다만,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고 있던 아이를 급히 땅에 내려놓고, 자신이 그 위에 엎드려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개는 격렬하게 오쓰나를 물어 많은 상처를 입혔지만, 오쓰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달려와 개를 때려죽이고 오쓰나를 간호하여 주인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에게는 상처가 없었지만, 오쓰나의 상처는 아주 심해 마침내 죽었습니다. 이 사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이 감탄하여 오쓰나를 위해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KII-(4)-8> 「충실」)

주인집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였던 오쓰나라는 시골의 가없는 소녀를 위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추모비를 세워 주었다는 후일담까지 소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헌신한 일본인 후루하시 겐로쿠로(古橋源六郎)가 <KII-(5)-4> 「공익」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후루하시 겐로쿠(古橋源六郎)는 미카와(三河)의 이나하시촌(稻橋村)의 사람으로 집은 대대로 양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제(市制)·정촌제(町村制)가 실시되었을 때, 촌장에 선출되었습니다만, 후에 이나하시촌이 다케후시촌(武節村)과 합병되고 나서도 조합장에 선출되어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맡으며, 공익을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KII-(5)-4> 「공익」)

그리고 후루하시와 같이 자선과 공익에 앞장선 조선인 김주용의 죽음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김주용(金周容)은 이와 같이 여러모로 많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만, 더욱이 죽을 즈음에 삼백 석이나 수입이 되는 토지를 공익 등의 사업을 위해 기부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KII-(6)-9> 「공익」)

두 사람 모두 「공익」이라는 덕목에 등장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했다는 것과 특히 김주용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일화의 소개는 조선인의 선량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식과 남편을 여윈 슬픔을 딛고 일어난 일화로서 자수성가한 김정부인¹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4) 김정부인(金貞夫人)은 남편 김재권이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에 임명되어 ‘정부인(貞夫人)’이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한다.(朝鮮總督府(1911), 『民政事蹟一斑』, 朝鮮總督府, p.89 참조.)

(김재권) 부인이 61세 때, 불행히 가장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4남 1녀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어서 남편도 또한 죽었습니다만, 부인은 기운을 북돋으며 손자들을 도우면서 집안일을 단속하며 조금도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이와 같이 해서 재산을 모으고 마침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만, 또한 자주 공공을 위해 재산을 나누어 주어 세상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KII-(6)-17〉「근검」)

이것은 <제I기>의 여동현의 아내와 비슷한 내용과 구성을 소개하고 있지만, 김정부인의 쪽이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II기>에 나타난 죽음의 유형은 자연사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이의 비유적인 죽음을 통해 살아 생전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오쓰나가 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사에 대해 그녀를 위해 추모비가 세워졌다는 것을 소개하며 다양한 죽음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I기>에 니노미야 손토쿠나 나카에 도주에게 사후에 주어졌다는 높은 관직의 소개 등이 일체 기술되고 있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 3·1운동 이후의 조선 아동들에게 위화감 조성을 회피하고자 하였던 반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사의 거명도 없고, <제I기>의 <충성>이란 단원에 등장했던 요시히사친왕(能久親王)도 배제되었던 것은 그들의 추모공간의 은폐와 ‘충군애국’과 같은 일체의 충성을 강요했던 덕목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제II기>는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II기>에서 은폐되었던 추모공간은 <제III기>에서는 일체가 조선 한민족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을 세우고, 신사정책을 펴며 신사를 전국 각지에 세워 강제로 참배하게 한 것이다. 조선인들에게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종교적 차원에서 일체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세뇌시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체에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전사한 군인과 경찰들을 신으로 모시는 제사(祭祀) 의식인 초혼제(招魂祭)를 설명하며, 도쿄(東京)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혼제라는 제사가 각지에서 행해집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 죽은 군인이나 경찰관 등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에는 정성을 들여 참배할 뿐만 아니라 모셔져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 천황을 위해 국가를 위해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쿄에는 천황과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신사가 있어 연중 참배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KIII-(4)-13〉「초혼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정책변화와 전쟁에 많은 물적·인적 자원을 일본이나 일본인만으로 서는 충당할 수 없을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일제는 조선에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그 인적 자원인 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정신교육으로서 <제Ⅲ기>에는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합사하여 제사지내는 야스쿠니신사를 소개하며, 그들의 충성심을 본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또 다른 신사인 호국신사(護國神社)와 달리 육군성과 해군성이 관할하는 군사시설이면서 동시에 종교시설이라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 특별한 추모공간이었다.¹⁵⁾

<제Ⅲ기>의 사후 세계의 특징은 개별적인 등장인물보다는 황국신민화 교육의 강화로써 조선신궁과 야스쿠니신사, 황대신궁, 초혼제 등의 추모공간과 추모의례를 통해 조선인의 전쟁동원과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 아동에게 신사참배와 추모의례를 통해 조선 역사의식을 말살시키고, 일제와 천황을 위해 죽은 자의 신격화를 각인시키는 교육을 행하였던 것이다.

4. 신격화의 서사(敍事)

일제는 조선을 병탄한 후, ‘충량한 신민’의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강점기 전 시기에 거쳐 『보통학교 수신서』에 <충성> <충의> <충군애국>이라는 덕목을 배치하여, 조선 어린이에게 일제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덕목으로 가장 먼저 <제I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천황가의 친족으로 요시히사친왕(能久親王)의 대만 출정과 그의 죽음의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친왕은 황족 신분이면서 대만과 같은 기후가 나쁘고 불편한 지방에 출정하시어 천황을 위해 국가를 위해 힘을 다하시고 마침내 목숨까지 잃으셨습니다. 참으로 충군애국심이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친왕은 지금 타이베이 대만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KI-(4)-4> 「요시히사친왕(能久親王)(충성)」

요시히사친왕이 대만 출정 중에 병사(病死)했다는 것을 소개하며, 그의 충정

15) 정호기(2006), 『전쟁사자 추모공간과 추모의례』,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학과학사, p.376.

애국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다. 즉 요시히사와 같은 황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몸소 충군 애국하는 마음을 조선 아동들이 본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리고 일본이 아닌 대만의 신사에 모셔져 있다는 것이다.¹⁶⁾ 이것은 대만을 청일전쟁이 끝난 후 1895년부터 일본이 식민지화시켜 가는 과정 중에 요시히사친왕이 병사한 것으로 일제의 침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후에도 <KIV-(4)-15> 「요시히사친왕」, <KV-(4)-4> 「요시히사친왕」이란 단원에서 거듭 등장하며 그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기술하며, ‘충군애국’ 교육의 본보기내지 신격화된 모범적인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격화시킨 인물로서 노기(乃木)대장의 사진과 노기신사(乃木神社)의 삽화와 함께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노기대장은 어릴 때에는 몸이 약하고, 겁쟁이었습니다만, 아버지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는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굳센 충성스런 군인이 되었습니다.(중략) 노기신사(乃木神社)는 대장을 모신 신사로 참배하는 사람이 언제나 끊이지 않습니다. <KIII-(2)-20> 「충의」

이후에도 <KIV-(2)-23> 「충의」, <KIV-(4)-6> 「극기」, <KV-(4)-18> 「노기대장의 소년시절」 등이 소개되며, 노기대장은 어린이에게 영웅적이고 신격화된 군인상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신격화된 노기대장의 실상을 부정적으로 지적하며 그 당시 매스컴에 의해 만들어진 영웅화였다는 견해도 있다.

노기는 지휘관으로서 무능하며, 러일전쟁의 여순 공격에서는 많은 젊은이를 희생시켰으며, 교육자로서도 박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착오적인 순사(殉死)라는 행위는 정부에 의해 무사도의 화신(化身)으로서 이용되고, 언론인의 대부분도 이것을 찬미하였다.¹⁷⁾

위의 인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기대장은 일제와 그를 추종하던 매스컴에 의한 영웅 만들기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수신서에 등장하게 된 일단면의 과정을 여실히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I기>부터 <제III기>까지 저학년의 단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죽음의 묘

16) 패전 후 요시히사친왕은 그의 손자인 기타시라가와노미야 나히사친왕(北白川宮永久)와 함께 유골이 야스쿠니신사로 옮겨졌다.(정일성(2000), 『황국사관의 실체』, 지식산업사, p.63. 참조)

17) 山住正己(1991), 『日本教育小史-近・現代-』, 岩波書店. p.82.

사가 <KIV-(1)-23> 「충의」에서 “기쿠치 병장(木口伍兵)은 용감하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적의 총알에 맞았습니다만 죽어도 나팔을 입에서 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청일전쟁에서 숨진 군인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기쿠치 고혜이의 행동은 조선 어린이들에게 충격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총을 맞고 죽어가는 삽화와 함께 실린 글을 읽고 어린 학생들이 이와 같은 전사자와 그 충성심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그렇지만, 일제는 이것은 조선 어린이에게도 가차 없이 황국신민화를 일찍부터 교육시키려고 하였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IV기>에서는 러일전쟁 때에 활약하다 죽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페이지 37-8(1904-5)년 러일전쟁 때, 육군 기병대위 고바야시 칸(小林環)은 상관의 명령을 받고 적진 속 깊숙이 들어가 그 상태를 탐색하여 훌륭한 공훈을 세웠습니다.(중략) 그런데 돌아올 때 유감스럽게도 적에게 잡혀서, 이욕고 처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일본군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침착하게, “천황폐하만세”를 외치고 용감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KIV-(3)-23> 「충군애국」)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육군 기병대위 고바야시 칸(小林環) 등은 스파이로서 적진에 파견되어 결국 잡혀 처형되었던 것이지만, 이런 인물조차도 영웅적인 최후를 마쳤다고 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다음에 인용하는 두 경찰관처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을 것이다.

보세요. 이것은 초혼제의 모습입니다. 국경에서 쓰러진 경찰관이나 화재 현장에서 죽은 소방수 등의 영혼을 제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모리타 마사하루(森田政治)와 김우선(金羽銑)은 국경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근방은 때때로 비적이 건너와서 양민을 괴롭힙니다. 쇼와 9(1934)년 9월 17일의 일이었습니다. 모리타와 김 두사람은 오늘도 선착장의 감시에 나가 있었습니다. (중략) 모리타는 얼마 후 죽었습니다. 우선은 이 일을 본서에 알리려고 되돌아 왔습니다만, 도중에 죽었습니다. (중략) 이 일이 천황·황후 양 폐하에게 전해져 황송하게도 부조금까지 주시며 도쿄의 야스쿠니신사에 모셨습니다.(<KIV-(4)-23> 「초혼제」)

여기에 나오는 비적은 도적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중국에서 활약하던 독립군을 가리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¹⁸⁾ 또한 주목할 점은 군인

과 경찰관의 순직은 물론 화재 현장에서 죽은 소방수까지 확대되어 초혼제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쇄술의 발달에 의한 바도 있지만, 더욱 생생하게 황국신민의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리타(森田)라는 일본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다 숨진 김우선(金羽善)은 분명 조선인으로서 순직하여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졌다는 것은 <보통학교수신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경우이다. 위와 같은 야스쿠니신사에 묻히기 위해서는 “야스쿠니신사에 안치된 자들은 대부분 메이지유신 이후의 희생자들로 몇몇을 제외하면 사회적으로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메이지시대 일본의 일반 국민이 국가가 받드는 제신(祭神)이 되는 길은 오로지 야스쿠니에 묻히는 길뿐이었다. 야스쿠니신사의 제신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텐노헤이카(天皇陛下)를 위해 전사하는 것이다. 천황을 위해 전사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명예로운 전사(戰死)’만이 국가의 신이 되는 조건”¹⁹⁾이었다고 한다. 즉 일반인이 전쟁터에서 일제와 천황을 위해 명예롭게 전사하는 것만이 신격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며, 이것을 수신서에서는 군인들의 다양한 전사 장면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에 언급한 기구치 병장이 용감하게 전사하는 삽화와 내용도 그 하나의 예이며, 중일전쟁 때 전사한 니시즈미(西住)대위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 도중에서 대위는 “천황폐하만세.”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위가 타고 있던 전차에는 적의 탄환 자국이 별집처럼 나 있었습니다.(<KV-(3)-19> 「니시즈미(西住)대위」)

이와 같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장렬히 전사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록하며, 조선 어린이들에게도 전쟁터에 나가 죽는 것이 충군애국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세뇌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2년 12월 7일의 진주만 공격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산화했다는 아홉 명의 용사는 전쟁 수행 중에 전사한 군인들의 집단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18)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는 ‘비적(항일 빨치산)’의 습격이 격렬해서 경찰의 신경이 날카로웠다. (중략) 1933년 무렵부터는 항일혁명투사 최현(崔賢)을 중심으로 한 무장단이 두만강 근처에서 행동을 시작했으므로 경찰관들은 편히 쉴 날이 없었다.(다카사키 소지 지음 · 이규수 옮김(2006),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p.158.)

19) 정일성(2000), 『황국사관의 실체』, 지식산업사, p.62.

특별공격대원 이와사(岩佐) 해군대위 이하 아홉 명의 용사는 전송하는 전우와 헤어져 미리 준비해 두었던 특수 잠항정에 승선하여 하와이 진주만을 향해 용감하게 출발하였습니다.(중략) 이날 아침부터의 전투에서 그토록 위력을 자랑하던 태평양함대의 주력은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홉 명의 용사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KV-(4)-15> 「하와이 해전의 아홉 용사」)

이와 같은 집단적인 전몰군인은 전쟁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중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다음 인용에서도 알 수 있다.

배를 끌어올렸을 때에는 정장 이하 14명의 승원이 마지막까지 직분을 지키고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역력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서는 이 때 정장의 곁에서 나왔습니다.<KV-(5)-2> 「사쿠마 정장(佐久間艇長)」

또한 침몰하는 배와 목숨을 함께 하며 순직한 <KV-(5)-8> 「히사다(久田) 선장」,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었던 <KV-(5)-9> 「군신의 모습」을 통해서 군인의 자질과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치바나(橋) 중령은 평소에 뜻을 굳게 먹고 용기 넘치는 군인으로 윗사람을 정중히 모시고 부하를 아끼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평소의 행동이 있었기에 장렬한 전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령을 많은 전사자들 중에서 특히 군신으로 우러러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KV-(5)-9> 「군신의 모습」)

전사한 군인들의 전형적인 모범인물로서 선전하며, 어려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전쟁터에서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했던 충군애국의 화신(化神)으로까지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군인 전사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으로는 <KV-(5)-17> 「야마모토 원수(山本元帥)」를 들 수 있다.

야마모토 원수(山本元帥)는 메이지(明治) 17(1884)년 봄, 구 나가오카(長岡) 번 사인 다카노 사다요시(高野貞吉)의 여섯째아들로 태어나, 나중에 같은 번의 명문 야마모토 가문을 이었습니다. (중략) 그런데 쇼와 18(1943)년 5월 20일, 뜻하지 않는 소식이大本營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스스로 진두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원수가 적과 교전 중, 비행기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은 꿈이 아닌가 하며 놀라고, 그 슬픔은 비유할 것이 없었습니다. 황공하게도 천황폐하께 보내지서서는 원수의 위대한 공훈을 헤아리

셔서 대훈위공일급(大勳位功一級)을 수여하시고, 원수의 칭호를 내리시고, 또한 서거(逝去)에 대해 특히 국장(國葬)을 명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인(武人) 최고의 자랑입니다. (<KV-(5)-17> 「야마모토(山本) 원수」)

야마모토 원수가 교전 중에 비행기에서 전사²⁰⁾해서, 온 국민이 경악을 하고 훈장이 수여되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온 국민이 더욱 전쟁에 분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전쟁에 광분하고 있던 일제가 가장 신망하고 있던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서 야마모토 원수는 일본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태평양을 비행기로 횡단했던 이이누마 마사아키(飯沼正明)의 돌연한 전사를 그린 <KV-(5)-20> 「이이누마 비행사」, 북만주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소련군에게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요코가와 쇼조(横川省三), 오키 데이스케(沖禎介)가 <KV-(5)-21> 「북만주의 이슬」 등에서 군인들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군인들의 장렬한 전사 뒤에는 일본 어머니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와이 진주만의 특별공격대로서 눈부신 활동을 한 아홉 군신도 또한 모두 훌륭한 어머니가 길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중략) 참으로 일본의 어머니 힘이 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초석이며, 국가를 구축하는 저력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KV-(6)-19> 「일본의 어머니」)

전쟁의 막바지에 접어들며 일제는 수많은 군인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성은 일제와 천황을 위해 자식을 낳아서 길러 기꺼이 전쟁터나 산업 역군으로서 출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군국(君國)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사한 아들의 소식을 듣고 해군성에 편지를 보내 천황과 일제를 위해 죽은 아들을 일본 무인의 어머니로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KIV-(6)-22> 「국방」에 등장하는 야스(ヤス)라는 어머니 상(像)을 통해서, 일제는 전쟁터에서 죽은 전사자를 신격화시키는데 박차를 가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여성을 이용하며 그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 연합함대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는 무선(無線)이 해독된 결과 1943년 4월 18일 탑승기가 격추되어 전사했다고 한다.(宮地正人(2001), 『國際政治下の近代日本』, 山川出版社, p.288. 참조)

5. 나오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 편찬 발행한 『보통학교수신서』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의 사후 다양한 영웅화의 양상과 특히 일본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치로써 이용하고 있던 기념비나 신사(神社) 등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I기>에 나오는 일본인으로서 니노미야 손토쿠, 나카에 도주, 이노 다다타카 등은 <제I기>부터 <제V기>의 전 시기를 통하여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메이지 정부는 그들에게 사후에 높은 관직을 하사하며, 일본 근대화의 새로운 인물로서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며 수신서에도 영웅시하여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으로서 정민혁과 여동현의 아내의 죽음이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지만, 그들은 조선시대의 평범한 농민으로 결코 일제의 영웅화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후 <제II기>부터 <제III기>까지 등장하는 이이와 이황, 김주영 같은 조선인은 주로 개인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효도’와 ‘근검’,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 ‘자선’과 ‘공익’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지만, 그들도 영웅화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제I기>의 ‘충성’이란 단원에 등장했던 요시히사친왕(能久親王)도 배제되었던 것은 그들의 추모공간의 은폐와 ‘충군애국’과 같은 일제의 충성을 강요했던 덕목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제II기>는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III기>에서는 개별적인 등장인물보다는 황국신민화 교육의 강화로써 조선신궁과 야스쿠니신사, 황대신궁, 초혼제 등의 추모공간의 과시와 추모의례를 통해 조선인의 역사의식을 말살시키고, 일제와 천황을 위해 죽은 자의 신격화를 각인시키는 교육을 행하였던 것이다.

<제IV기>는 저학년에서부터 천황과 일제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의 모습이 여과 없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제V기>에서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의 격화와 1942년의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안, 일제는 전시체제를 조선 전도에 펼치면서 조선 어린이에게까지 일제와 천황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황국신민화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제와 천황에 대한 충성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 수신서에도 그와 관련된 일화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던 것이다. 즉 목숨을 바쳐 일제와 천황에게 충성을 다했던 군인들이 전사하

는 내용과 삽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전사한 군인과 경찰관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며, 그들의 행동을 충군애국의 죽음으로 신격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그런 신격화된 죽음을 조장시키기 위해 그들의 뒷바라지를 군국의 어머니가 충실히 해야 한다는 비인도적이고 비이성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교육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参考文献】

- 김진균 · 정근식 · 강이수(1997),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학과과학사, p.78.
- 다카사키 소지 지음 · 이규수 옮김(2006),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p.158.
- 정일성(2000), 『황국사관의 실체』, 지식산업사, p.63.
- 정태준(2003), 「일제강점기하 수신교과의 정책연구」, 『일어교육 27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235-263.
- 정호기(2006), 「전쟁사자 추모공간과 추모의례」,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학과과학사, pp.366-396.
- 지호원(1999), 「日帝下 修身 教科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128-129.
- 한기언 · 이계학(1996), 『韓國教育史集成』, 한국학 중앙연구원. pp.55-554.
- 芥川竜之介(1925), 「侏儒の言葉」, 『羅生門・鼻・侏儒の言葉』, 旺文社, pp.91-92.
- 高橋浜吉(1927), 『朝鮮教育史考』, 帝国地方行政学会 朝鮮本部, p.401.
- 朝鮮總督府(1911), 『民政事蹟一斑』, 朝鮮總督府, p.89.
- 朝鮮總督府編(1936), 『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 p.345.
- 中村紀久二(1990), 『復刻 国定修身教科書』, 大空社, p.81.
- 宮田節子(1991), 「皇民化政策の構造」,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緑陰書房. p.152.
- 宮地正人(2001), 『國際政治下の近代日本』, 山川出版社, p.288
- 山住正己(1991), 『日本教育小史-近・現代-』, 岩波書店. p.82.

要 旨

朝鮮総督府が編纂し、発行した『普通学校修身書』には、多くの登場人物たちの死後の多様な英雄化の様相と特に日本人を追慕するための装置として利用していた記念碑や神社などが描写されている。

<第Ⅰ期>は日本人として二宮尊徳、中江藤樹、伊能忠敬などは<第Ⅰ期>から<第Ⅴ期>の全時期を通じて登場している人物たちである。明治政府は彼らが死んだ後、高い官職を下賜して、日本近代化の新しい人物として政治的に浮上させて修身書にも英雄視して扱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しかし、朝鮮人として鄭民赫と呂東賢の妻の死が比較的詳らかに描写されているが、彼らは朝鮮時代の平凡な農民であった。彼らは決して日帝の英雄化の対象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見逃してはいけない。また、以後の<第Ⅱ期>から<第Ⅲ期>まで登場する李栗谷と李退溪、金周容のような朝鮮人は主に個人的な徳目を強調する「孝行」と「勤儉」、そして社会的関係を重視した「慈善」と「共益」などの単元に集中的に配置されたが、彼らも英雄化の対象ではなかった。

<第Ⅳ期>は低学年から天皇と日帝に忠誠をつくすために戦地で命をかける軍人の姿が濾過なしに集中的に現われて、<第Ⅴ期>ではもっと多様な形態に表現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これは、1937年から始まった日中戦争の激化と1942年の太平洋戦争とにつながる間、日帝は戦時体制を朝鮮の全国に広げながら朝鮮の子供にまで日帝と天皇のために身と命をか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皇国臣民化の政策を力強く推進した結果であったと思われる。このような日帝と天皇に対する忠誠は無条件的な犠牲を強制する手段として、それを教育するために修身書にもそれと係わるエピソードが重点的に紹介されていたのである。そして、戦場などで戦死した軍人と警察官たちは靖国神社に祭られ、彼らの行動は忠君愛国の死で神格化させていた。また、日帝はそのような神格化された死を助長させるために、彼らの世話を軍国のお母さんが充実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非人道的で非理性的な役目を担当するように朝鮮の子供に教育させていたと言えるだろう。

このように、日帝は皇国臣民化の完遂するために<普通学校修身書>を通じて朝鮮の児童の心性と人格を変質させ、朝鮮の民族意識を抹殺させて、その歴史観まで歪曲させる役目を充実担当させたと言えるだろう。

キーワード：英雄化、忠君愛国、修身書、皇国臣民化、戦死者、神格化

투 고 : 2007. 8. 31
1차 심사 : 2007. 9. 8
2차 심사 : 2007. 9. 29

姓 名 : 김 용 갑

住 所 :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2동 일신아파트 101동 1705호

電 話 : 062-446-5553, 010-9012-0606

e-mail : gabkim@chonnam.ac.kr

姓 名 : 김 순 전

住 所 : (500-072)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62-530-3211

e-mail : sjkim77@chonnam.ac.kr